

# 겨울에 만나는 여행지 남원 주목

눈꽃 · 설경 자연경관 · 실내 · 야간 관광 콘텐츠 등 겨울 관광 경쟁력 강화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겨울철 추위 속에서도 오히려 매력을 더하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겨울에도 충분히 찾을 가치가 있는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눈꽃과 설경이 빛어내는 자연경관은 물론, 추위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실내 · 야간 관광 콘텐츠까지 고루 갖추며 겨울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의 남원은 단순한 비수기가 아닌, 자연의 고요함과 공간의 깊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로 평가받는다. 흰 눈으로 덮인 산과 숲, 차분한 도시 풍경 속에서 여유롭고 밀도 있는 여행이 가능해 겨울 특유의 감성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겨울 자연 명소로는 눈꽃 등산으로 잘 알려진 바래봉과 남원 구간 지리산 설경이며, 겨울철 바래봉과 지리산 자락은 눈꽃이 만들어내는 장관으로 다른 계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선사하고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남원'의 이미지를 완성한다.

이와 함께 남원의 겨울 관광은 실외 자연경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빛과 자연, 미디어 콘텐츠가 결합된 관광명소 달빛정원 피오리움은 겨울밤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감성적인 공간으로 연출되며, 연인과 가족 여행객 모두에게 인상적인 야간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내 문화 · 전시 콘텐츠 역시 겨울철 남원 관광의 중요한 축이다.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은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수준 높은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대표 문화관광지로, 중장년층과 문화 · 예술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 남원의 품격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실내 전시 콘텐츠도 다양하게 운영, 지리산 허브밸리에서는 2026년 겨울방학 특별기획전 '날개와 향기, 겨울 속 봄을 피우다'를 통해 식물과 향기를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 한 겨울에도 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는 '백두대간 계관오분전 시즌 2'가 열려 백두대간의 생태와 자연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며, 교육과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겨울 실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남원아트센터 지하 1층에서는 전시 다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흐름으로'가 진행, 사유와 여운을 남기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깊이를 더한다. 한편, 운봉 바래봉 일원에서는 2026년 1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눈꽃축제가 개최된다.

이처럼 남원시는 눈꽃과 설경의 자연자원, 실내 전시 · 체험 공간, 야간 관광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겨울철에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복합형 관광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가족 단위 여행객, 연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층이 겨울에도 남원을 찾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부터 관내 320개 전 마을 방문에 돌입하며 민선 8기 들어 4년 연속 새해 첫 발걸음을 군민과 함께 시작했다.

## ‘군민과의 대화’로 새해 활짝

최영일 순창군수, 4년 연속 새해 첫 발걸음 군민과 함께 시작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부터 관내 320개 전 마을 방문에 돌입하며 민선 8기 들어 4년 연속 새해 첫 발걸음을 군민과 함께 시작했다.

순창군은 '오메! 왔소?, 아파! 반갑네, 그레! 고마워!'라는 정감 있는 인사를 주제로 한 '오메! 아파! 그레! 대화'를 통해 관내 320개 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군민들이 건의한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군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군정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마을 방문은 7일부터 2월 중순까지 약 20여 일간 진행된다.

지난 3년간 마을 방문 당시 읍 · 면별로 빠듯했던 일정을 보완해 각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변화된 제도와 군정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난해 각 마을에서 도출된 총 80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과 도로, 가스, 상 · 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4년 연속 실시하는 이번 마을 방문이 '오메! 아파! 그레! 대화'라는 주제처럼 형식적인 일정이 아닌, 정감 있고 친근한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군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한 분 한 분이 주신 소중함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320개 마을 방문을 설 명절 이전에 마무리한 뒤, 2026년 군정 방향을 공유하는 읍 · 면 순회 군정설명회를 이어서 개최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 통

남원시보건소, 비만예방 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지역주민의 비만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오늘도 건강해짐(GYM)' 1기 이용자를 모집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총 3기수에 걸쳐 운영되며, 1기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오는 1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이고 대상은 만 49세에서 19세까지 시민으로 모집 인원은 1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우선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방문하여 체성분 측정 후 체지방률이 남성 25%, 여성 33%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여자는 3개월 동안 주 3회(월 · 수 · 금) 운동 지도와, 개인 맞춤형 영양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체중관리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임실군협의회(회장 염상열)는 지난 6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헌화 및 분향하는 것으로 병오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상열 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참배를 진행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염상열 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토대"라며, "그 희생의 의미를 계승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일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 ‘2025 임실 방문의 해’ 918만명 찾아

한국관광공사 집계 결과 918만3132명… 천만관광 임실 가시권

임실군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지난 12년간 아홉 차례 추진해 온 '천만관광 임실시제'가 지난해 '2025 임실 방문의 해' 성과를 계기로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임실군을 찾은 방문객 수는 918만3,13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8년 498만명에서 무려 84.2%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7년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며, 도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임실군 방문객 수는 지난 2022년 809만명으로 첫 8백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 2024년 888만명을 거쳐 지난해 임실 방문의 해 추진과 함께 900만명을 넘어서는 기업을 토론했다.

이 같은 연간 방문객 수는 인구 수가 비슷한 인근 동부권 5개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특히 임실군 자체 통계로도 최근 7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방문객 수 역대 최고 기록



△도내 증가율 1위 △동부권 유일 900만명 돌파라는 세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 임실군 관광 역사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크다.

군은 2025년을 '임실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연간 방문객 1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사계절 축제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918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목표에 근접한 성과를 거뒀다.

/임실=진종영 기자

## 남원시, 스마트 · 영상 회의로 행정 혁신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마트회의와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 2년을 넘어서며 스마트하고 과학적인 행정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남원시는 2022년 12월 재난상황실에 구축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하여 태풍, 집중호우, 산불, 구제역 등 재난 위기 상황 시 본청과 23개 읍면동 간

실시간 영상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했다.

또한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송출하는 생생한 현장 영상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청 지휘부와 일선 현장 읍면동이 실시간 정보 공유·협업하는 원팀이 되어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단축하고 재난 대응력

이 한층 강화되어 시민 안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25년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12월에 본청과 23개 읍면동, 관내 전체 496개 경로당을 잇는 실시간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이 더 빨라지고 여가 복지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스마트 복지 서비스 침구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보절 · 덕과면서 천연기념물 독수리 떼 목격

남원시 보절면에 천연기념물로 알려진 독수리 100여 마리가 2년 연속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와 장관으로, 지난 2024년부터 12월에서 2026년 1월 사이 보절면 신평리 신평계 저수지 주변과 덕과면 신평리 미꾸리양식장 주변 농경지 일원에서 독수리 떼가 목격되고 있다.

몽골에서 서식하는 독수리들은 매년 11월경 월동을 위해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를 찾고, 3월~4월 중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데 남원이 독수리들의 새로운 월동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독수리는 예로부터 북방문화권에



서 '번영'과 '부상', '강인한 기운'을 상징하는 영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보절면민들 사이에서는 이전에 보기 드물었던 독수리 떼의 출현 현상을 두고, 남원시의 도약과 번영을 알리는 '길조' 출현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